한국문학논총 제67집(2014. 8) 5~44쪽

최치원의 삶과 시적 대응

김 은 미*

차 례

Ⅰ. 서론
Ⅱ. 최치원의 삶의 자세
1. 인백기천(人百己千)의 노력
2. 소지음(少知音)의 인식
3. 원리진세(遠離塵世)의 지향
Ⅲ. 최치원의 시적 대응
1. 적극적 영달 추구
2.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3. 탈속과 은거 지향의 자세
Ⅳ. 결론

국문초록

우리문학사에서 최치원의 족적은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그의 명편들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의 시에 드러나는 일부 특징을 확대 해석하여 최치원 시 세계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해 내지 못한 면이 있다. 본고는 최치원의 삶의 특징적 변화를 보이는 지점에서 그의 시적 대응도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그의 삶과 그의 시가 조응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그의 삶의 자세와 변화를 시 세계의 변화와 함께 검토하였다.

최치원의 삶은 그 출발부터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문

*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제들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보았다. 육두품의 신분적 제약은 당나라 유학을 통해 극복하려 했고, 실제로 인백기천(人百己千)의 노력으로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당나라에서 불안하기만 했다. 관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기다려 얻는 것도 말단관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치원은 박학굉사과를 준비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자 고병의 막부에 들게 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앞길을 개척하려 한 것이다. 이때 쓴 진정시(陳情詩)는 문학적 역량을 이용하여 영달의 길로 나아가려한 최치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적극적 대응은 신라 귀국 후 헌강왕에게 지어올린 ≪계원필경집≫의 찬술 목적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한편, 최치원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소지음(少知音)의 상황을 절감하였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소지음의 인식은 심화되었고 그가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도 차츰 더 멀어져 갔다. 이런 상황은 신라 귀국 후에도 이어졌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도 여러 차례 시로 형상화되었다.

신라 귀국 후 오래지 않아 외직을 전전하게 되면서 최치원은 은거 지향을 구체화시킨 듯하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동경의 대상이기만 하던 자연 공간이 자신을 의탁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탈속과 은거를 지향하는 자세는 여러 차례 변화를 보이며 심화되다가 마침내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이 연구는 삶에 대한 최치원의 여러 자세들을 살피고 그런 삶의 자세가 그의 시 세계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런 작업은 그래서 그의 문학적 삶을 재구하고 최치원 시 세계의 실상에 다가서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최치원, 작가론, 인백기천, 소지음, 원리진세, 진정시, 은거시

Ⅰ. 서론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은 한국한문학이 중국문학과 대등하게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 후대에까지 칭송되는 영광을 누린[1] 인물이다. 동국문종(東國文宗)[2]이자 동방문학의 비조(鼻祖)[3]로, 최치원은 우리 한문학사 제일 앞머리에 오는 문인이자 우리 한문학의 개척자였다. 뿐만 아니라 북송 때 구양수(歐陽脩, 1007~1072) 등이 편찬한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 이름을 올리는 등[4] 당대 당제국에서도 뛰어난 문인이었으며, 일본인 오오에노 고레도끼(大江維時, 888~963)가 선별한 ≪천재가구(千載佳句)≫에도 작품이 실릴 정도로[5] 국제적 명성을 얻은 시인이기도 했다.

최치원이 이룩한 시 쪽에서의 문학적 성과는 우선, 금체시(今體詩)와 칠언시 확립의 공로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오언고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신라 말에 와서야 금체시의 형식을 취한 오언이나 칠언시가 확인되며 최치원이 바로 이 금체시와 칠언시를 확립한 데 공이 있다[6]는 것이다.

최치원의 시가 보여주는 문학적 세계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최치원을 비롯한 도당 유학생들의 시를 빈공제자(賓貢諸子)의 시로 함께 다루며 최치원의 시가 만당풍을 보인다는 그간의 막연한 평가를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7]와 함께, 최치원의 시를 중국 및 일

---

1)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제2판 (지식산업사, 1998) 73쪽.
2) 서수생, 「동국문종 최고운의 문학」,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56)
3) 김성룡, 「신라 왕실과 최치원」, 『한국문학사상사』 (이회, 2004) 138쪽.
4) 김중렬, 「최치원의 문학사상」, 『고운 최치원의 시문학』 (문사철, 2011) 165쪽.
5) 박노준, 「『천재가구』 소재 신라 문인의 시작품」,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228쪽.
6) 최신호, 「최치원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7)
7) 이혜순, 「신라 말 빈공제자의 시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7 (한국한문학연구회, 1984) 1~29쪽.

본의 한시와 비교하면서 공시적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8] 최치원의 서정시를 고찰하여 그의 소외의식을 분석해 내기도 하였고,[9] 최치원의 불교시에 담긴 사대부적 야망과 세속적 삶의 인간적 고민을 탐구하기도 하는[10] 한편, 남북국 시대라는 새로운 틀로 최치원의 고뇌를 분석하기도 하였다.[11] 이와 관련해서 최치원의 문학이 과거를 통해 입신하는 데 필요한 문학이었다[12]거나, 우리 문학사에서 최치원의 시로부터 개인 서정시의 발현[13]이 확인된다는 분석, 귀국 후 재덕을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산수 간에 소요함으로써 인생의 근본 문제를 더욱 깊이 생각하였고 그 결과 위대한 서정문학을 탄생시켰다는[14] 평가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은 대개 최치원의 시 각 편을 분석하거나, 그의 생애 중 특징적 시기에 연관되는 특징적 작품에 주목하다 보니, 삶에 대한 최치원의 인식이 변화해가는 궤적이 그의 시편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면이 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변화하는 데 따라 시편도 변화하는 것은 간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치원 삶의 특정 시기의 특징이 최치원 전 생애의 특징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것은 최치원의 시를 개관하는 것이 시급한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최치원의 생애가 통시적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 그가 남긴 상당수의 시들은 창작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연구 역량이 축적된 이 즈음에

---

8) 호승희, 「신라한시 연구 - 전개양상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9) 정종대, 「최치원의 서정시에 나타난 소외의식」, 『고운 최치원의 시문학』 (문사철, 2011)
10) 강석근, 「고운 최치원의 불교시 재론」, 『동악어문논집』 38 (동악어문학회, 2001)
11) 이강옥, 「남북국 시대 지식인의 고뇌와 문학 - 고운 최치원」,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12) 조동일, 앞의 책 64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270~277쪽 참조.
13) 성낙희, 『최치원의 서정신 연구』 (관동출판사, 1986)
14)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고운 최치원의 시문학』 (문사철, 2011)

는 그의 삶과 시를 비교해 가며 한 좌표에 놓아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창작 연대를 실증할 수 없는 시편들도 그 시들이 보여주는 특징적 변화에 주목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본고에서는 최치원의 삶의 자세와 그 변화가 시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그의 시가 보이는 큰 흐름이 대개 그의 삶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정신의 모든 특질은 대체로 그의 작품 속에 기술되어 있다[15]는 전제를 수용하여, 최치원의 생애를 통시적으로 보면서 시세계가 변화를 보이는 지점들에 관심을 두었다.

물론 최치원의 시가 시기별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경향의 시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다가, 최치원의 삶의 자세가 변화를 보이는 특정 시기에는 그의 시도 그런 특징적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그의 삶의 큰 굽이에 그의 시가 보여주는 경향성의 변화가 대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치원의 삶의 자세에 대응하는 시편을 분류하고 그 성격을 분석하는 것으로, 고운 최치원의 문학적 생애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갖는다.

Ⅱ. 최치원의 삶의 자세

1. 인백기천(人百己千)[16]의 노력

최치원은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최치원의 아버지는 고작 열두 살짜리 아이에게 10년이라는 시한을 정해주며 그

15) Virginia Woolf,『Orlando』(London and New York, 1928) 189쪽 참조. 레온 에델,『작가론의 방법』(삼영사, 1983) 92쪽에서 재인용.

16) "臣佩服嚴訓 不敢弭忘懸刺 無遑冀諧養志實得人百之己千之 觀光六年 金名榜尾" ≪계원필경집≫ 서(序)

사이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17] 모진 말로 먼 길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였다. 부자 사이 이런 비장한 이별의 배경에는 신라의 완강한 신분제와 그 속에서 한계를 절감한 육두품이 있었다.

당시의 신라는 진골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한편, 한문학과 불교 양면으로 중세 보편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던[18] 육두품은, 진골 중심의 사회에서 처음부터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육두품 출신 중에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치원도 그 중 하나였다.

아버지가 정해준 시한은 어린 최치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19] 그래서 육로로 해로로 당의 수도인 장안까지 가는 동안 최치원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을 것이며, 과거 급제에 대한 열의를 다졌을 것이다. 실제로 최치원은 장안 도착 후 국자감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백을 하면 자신은 천을 하는[人百己千]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최치원은 아버지가 정해준 10년을 다 쓰지 않고서도 874년, 단번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빈공과에 급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빈공과 합격자는 당의 합격자와는 그 위치가 달랐고 임용될 때의 관직도 보잘 것 없어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20] 게다가 그 당시 중국의 전선제도(銓選制度)[21] 때문에 최치원은 과거에 급제하고도 3년

17) “公 姜風儀 少精敏好學 至年十二 將隨海舶 入唐求學 其父謂曰 十年不第卽非吾子也 行矣勉之” ≪三國史記≫ 권46, 列傳 崔致遠 條.
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1 (지식산업사, 2005) 38쪽.
19) 이런 최치원의 상황을 이구의는 ‘억압’과 ‘자유’의 개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구의, 『최고운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5) 49~52쪽.
20) 이혜순, 앞의 글 5쪽.
21) 전선제도(銓選制度)는 당송(唐宋)의 관리 선발제도이다. 6품 이하의 직위와 관직은 이부(吏部)에서 대기자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자격이 있는 자들은 규정된 기간 동안 이부의 선발을 기다려야 한다. 王勳成, 『唐代銓選與文學』 (中華書局, 2001) 참조. 이황진, 「최치원의 재당생애 재고찰」, 『한국민족문화』 42 (부산대학

의 수선(守選)기간을 채운 877년 초에야 율수현위(溧水縣尉)로 부임할 수 있었다. 율수현위는 종9품의 말단관직이었다.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했던 최치원은 급제 후 수선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이 깨뜨릴 수 없는 공고한 현실의 벽을 인식했을 것이다. 과거 급제 동기인 고운(顧雲)과 배줄(裵拙)이 875년 당시 이미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비해, 이렇다 할 인맥이나 배경이 없던 최치원은 어쩔 수 없이 수선기간인 삼 년을 다 채우고 난 877년에야 비로소 율수현위로 부임할 수 있었다.[22] 고운과 배줄이 중국인이고 자신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빈공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년은 긴 시간이었다.

3년을 기다려 율수현위에 임용된 최치원은 3년의 임기를 마칠 무렵[23] 같은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다시 수선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관직 제수와 수선의 이런 반복은 5품 관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24] 첫 임용 때 이미, 인맥과 배경이 없는 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입지에 대해 그 한계를 절감한 바 있는 최치원으로서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소극적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없었다.

최치원이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급 관료의 등용문인 박학굉사과에 합격하고 나면 수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관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자신 같은 외국인으로서 환로에 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었다. 그래서 879년 겨울, 율수현위의 임기가 끝난 최치원은 곧바로 박학굉사과 준비에 매진한다.

그런데 당나라 말기의 혼란한 사회상은 최치원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

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주18에서 재인용.

22) 이황진, 앞의 글 10~11쪽.

23) 그간 최치원의 율수현위직 사퇴 시기에 대해,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는 주장과 임기를 마친 후라는 주장이 병존했다. 이황진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정황과 문헌증거를 통해 3년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황진, 앞의 글 76~84쪽 참조.

24) 왕훈성, 앞의 책 56쪽. 이황진, 앞의 글 21쪽에서 재인용.

로 사태를 진행시켰다. 880년 봄에 있어야 할 시험이 없어진 것이다. 최치원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시험 준비에 몰두하던 중 박학굉사과 시험이 취소 혹은 중단되었고 최치원은 앞길이 막히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당시 황소군(黃巢軍)의 기세를 고려할 때 박학굉사과가 재개되는 것은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25] 박학굉사과에 걸었던 최치원의 기대는 틀어지고 말았다.

마침내 최치원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박학굉사과 준비를 포기하는 대신 고병(高駢, ?~887)의 막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당시의 막부는 독립 왕국과도 같았고 실제로 많은 문사들이 막부에 들어가기도 했다.[26] 박학굉사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장 관직을 얻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진 외국인 최치원은 고병 막부 선택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이다. 당시 회남절도사를 맡고 있던 고병은 당 조정의 경제적 기반을 맡아 관리하면서 율수가 있던 선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막부에 들기로 마음먹은 최치원은 고병 휘하에 있던 자신의 진사시 동년(同年)인 고운(顧雲)에게 부탁하여 고병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천거하기에 이른다.[27]

도당 초기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최치원이 보였던 인백기천(人百己千)의 노력은 고병 막부에 들기 위한 것으로 다시 나타났다. 최치원이 잡편(雜篇)의 문장 다섯 축(軸)과 진정(陳情)한 칠언장구시(七言章句詩) 1백 편을 고병에게 올리며 '타국에 와서 10여 년 동안 고학(苦學)한 것을 조금쯤 측은하게 생각하고 곤궁한 처지에서 구제해' 주기를 바란 것은[28] 공권(公卷)[29]을 의식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천거한 것이다.

---

25) 실제로 박학굉사과는 897년에야 한 번 시행되고 897년과 901년의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황진, 앞의 글 22쪽에서 재인용.
26) 이황진, 앞의 글 23쪽.
27) 장일규, 「해제」, ≪계원필경집≫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이상현 역, 올재, 2013) 45쪽.
28) ≪계원필경≫ 권17 310쪽.
29) 공권(公卷)은 당(唐) 관료선발제의 잔영이다. 과거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는

이런 노력이 인정되어 마침내 최치원은 고병 막부에 들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승진을 거쳐 성공적인 막부 생활을 하였으며, 신라 귀국길에는 '회남입신라겸송국신등사전도통순관승무랑전중시어사내공봉사비어대(淮南入新羅兼送國信等使前都統巡官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賜緋魚袋)'라는 벼슬을 받는다.[30] 어린 나이에 떠난 도당 유학길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인백기천의 노력[31]으로 앞길을 개척한 최치원이 드디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

2. 소지음(少知音)[32]의 인식

어린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문학적 능력으로 출세하려던 최치원에게 문학이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것이 최치원이 목표로 하는 문학이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의 문학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상황은 최치원에게 불안한 상황이었다.

877년 초 율수현위직을 받는 과정에서 최치원은 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고운이나 배졸과는 달리 3년의 수선기간을 다 채우고서야 말단 관직을 얻을 수 있었던 최치원에게는 당시가 바로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는 '소지음(少知音)'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치원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되 과거만으로 평소의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겨, 과거 급제자가 평소에 지은 글을 예부(禮部)에 바치게 하고 그것으로써 벼슬을 차등 제수하였다. 楊成鑒・金濤聲, 『中國考試學』(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3) 107~108쪽 참조. 김성룡, 앞의 글 141쪽에서 재인용.

30) <제참산신문(祭巉山神文)>, ≪계원필경집≫ 권20 참조.

31) 최치원의 이런 노력은 시작(詩作)에서도 확인된다. 송준호는 최치원 시의 시상구조 분석을 통해 그의 시가 선천적 품성과 재질보다는 후천적 연마와 경험으로 쓰여진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 송준호, 「최고운 시의 시상구조 및 그 몇 가지 특색」, 『고운 최치원의 시문학』(문사철, 2011) 263쪽.

32) '秋風惟苦吟 擧世少知音' <추야우중(秋夜雨中)> ≪최문창후전집≫ 24쪽.

사실 최치원은 이런 소지음의 상황을 피해 당으로 유학한 셈이었다. 처음부터 육두품의 한계가 명확했던 신라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백기천의 노력으로 과거를 준비했고, 아버지가 지정한 10년이 되기도 전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 육두품 신분이 자신의 질곡이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외국인 처지가 자신의 족쇄였다. 이런 최치원의 심정은 자신을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외래자(外來者)의 소지음 인식으로 표출된다. 단번에 급제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으나, 막상 빈공 급제로는 하급관리에만 머물러야 함을 깨닫게 된 최치원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실감한다.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알아주는 이 없는 이국 땅에서의 최치원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현재 처한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런 위축감은 최치원의 소지음 인식과 연결되어 그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던 기상은 겉으로 드러날 수 없었다. 자긍과 자부의 자의식은 차츰 자조와 무력감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실, 노력으로 앞길을 헤쳐 나가는 것은 최치원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열두 살 때 타국에 와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최치원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뿐이었다. 적극성과 재능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아가던 최치원은,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 항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적극적 의지만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당나라 말기의 국정 혼란도 원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 어려움은 최치원 자신이 의탁했던 고병에게 기인한 바 컸다. 고병은 882년 1월 도통에서 물러나면서 실권하게 되었고 그 이후 재기를 노리기보다는 도교에 더욱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런 고병을 보면서 최치원은 더 이상 고병 아래에서는 포부를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33] 다시 선택의 기

33) 장일규, 앞의 글 44~49쪽 참조.

로에 선 것이다. 자신의 앞길을 암중모색하던 최치원은 884년에 김인규(金仁圭)가 입회남사(入淮南使)로 회남에 들어오자 용단을 내려 17년 간의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그 해 10월 김인규와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중국에서의 소지음의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려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인백기천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귀국 이후의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았다. 금의환향한 최치원이었지만 신라에서의 육두품 신분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육두품 인재의 부상 앞에서 진골귀족들은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졌고, 그 결속을 깨뜨리기에 육두품은 여전히 제약이 많은 위치였다. 국학 출신의 국내파 문인과도 갈등이 빚어졌다.[34] 또 다시 타개책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최치원은 다시 한 번 문학적 능력에 자신을 걸어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계원필경집≫ 진상이었다.

884년 10월 당시 28세이던 최치원은 당나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885년 4월 신라에 도착한다. 귀국 직후 최치원은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의 측근인 시독(侍讀)을 맡았으며 귀국 다음 해인 886년 1월 그간 쓴 글을 모아 편집한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20권을 왕에게 진상한다.[35]

최치원이 헌강왕에게 바친 자신의 글 역시 일종의 공권(公卷)[36]이었다. 고병 휘하에 들기 위해 공권 형식의 글을 지어 바친 바 있는 최치원은 이번에는 자신의 글을 모아 헌강왕에게 진상하면서 그것을 본 왕이 자신을 보다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치원이 헌강왕에게 ≪계원필경집≫을 진상한 것은 고병에게 의탁하기 위해

---

34) 이혜순, 앞의 글 7쪽.

35) 이때 최치원은 중국에서 지은 사시금체시(私試今體詩) 5수 1권, 오언칠언 금체시 100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중산복궤집(중산복궤집)≫ 5권 1부도 함께 올렸다. ≪계원필경집≫ 서.

36) 주29 참조.

글을 지어 바쳤던 20대 최치원의 재현이었다. ≪계원필경집≫을 통해 도당 유학생 출신이자 당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자신을 왕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자신의 웅지를 펼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현실의 벽은 높았다. 완고한 신분제의 벽과, 신라 말기의 사회 혼란은 최치원이 지어올린 공권이 좋은 결실로 되돌아오기 어려운 이유였다. 공고한 진골귀족의 결속을 깨뜨리기에 최치원 개인은 역부족이었으며 말기적 상황이 심화되어 가던 그 시기에는 이런 신분제의 폐해를 각성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겪었던 소지음의 상황이, 신라에서는 육두품이자 오히려 국내 기반이 취약한 도당유학생 출신의 소지음 상황으로 변주된 것이다.

귀국 후 최치원이 맡은 직책은 남을 대신하여 문서를 찬술하는 한림(翰林)이나 지방 태수에 국한되었다.[37] 889년 병부의 차관인 시랑을 잠시 맡기는 했으나 890년 이후로는 대산군[태인], 부성군[서산] 등의 지방관으로 전전하게 된다. 진성왕 때인 894년 시무 십여 조(時務十餘條)를 지어 바친 후 신라 작위 중 제 6위에 해당하는 아찬을 제수 받기도 했으나,[38] 진성왕 즉위에 반발했던 정치 세력을 비롯한 진골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어 898년에 해임된다.[39]

이런 상황에서 최치원은 더 이상 이상을 실현하려 하거나 웅지를 펼치려 하기 어려웠다. 인생의 전반기에 중국에서 겪은 소지음 상황은 젊은이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었고 그것이 더 이상 여의치 않았을 때 신라 귀국이라는 선택을 통해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에서 겪게 되는 소지음 상황은 최치원으로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신라 사회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개할 수 없어 감내하기만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차츰 탈속 지향으로 경도된 것은 최치원으

37) 강석근, 앞의 글 340쪽.
38) “眞聖王八年 公進時務十餘條 王嘉納之 以爲阿湌” ≪최문창후전집≫ 408쪽.
39) 장일규, 앞의 글 44~49쪽 참조.

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3. 원리진세(遠離塵世)[40]의 지향

신라 말의 육두품 지식인들은 대개 불교보다는 유학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진골 지배체제에 불만을 가졌던 육두품들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불교는 진골의 정신적 배경이었기 때문이다.[41]

최치원 역시 스스로를 유자(儒者)로 인식하였다.[42] 그러나 유자의 길을 따르려던[43] 최치원은 자신이 외국인이자 나그네이며 외래자이기 때문에 유자로서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차단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소지음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소지음 인식은 최치원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신은 해외의 사람이자[44] 외래자이며 타향 출신이고,[45] 외방에서 와 재예가 하품임[46]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내심과는 상관없이 그가 당나라 생활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생활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고병에게 의탁하여 확실히 안정감을 얻은 직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이역에서 건너왔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제적 사정이나 관직 제수 등의 외부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그의 심리에 소지음 인식이 저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니 최치원으로서는 차츰 내적 자아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물외

---

40) '遠離塵世雖堪喜' <기호원상인(寄顥源上人)>, ≪최문창후전집≫ 33~34쪽.
41) 조동일, 『한국사상사시론』 제2판 (지식산업사, 1998) 62쪽.
42) 최치원의 이런 인식은 ≪계원필경집≫ 권17의 <재헌계(再獻啓)>, 권18의 <사시연화각기비상(謝示延和閣記碑狀)>, <사신다장(謝新茶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재헌계(再獻啓)>, ≪계원필경집≫ 권17.
44) <사생료장(謝生料狀)>, ≪계원필경집≫ 권17.
45) <초투헌태위계(初投獻太尉啓)>, ≪계원필경집≫ 권17.
46) <헌시계(獻詩啓)>, ≪계원필경집≫ 권17.

(物外)의 청산과 녹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저는 토사(免絲)와 같으니 누가 몸에 두르겠습니까. 혼자 거미처럼 그물을 짜고 있을 뿐입니다. 만 가지 꾀를 내어 생각해 보아도 배우는 것이 훨씬 나으니, 백년토록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
> 그런 까닭에 벼슬길을 다투지 않고 유자(儒者)의 길만을 따랐으며, 처음 관직을 얻었을 때에도 진토(塵土)를 붙좇아 따르기를 싫어하고, 거처를 가려서 정할 때에도 임천(林泉)을 탐내며 그리워하였습니다. 세상의 요로(要路)와 통진(通津)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고, 물외(物外)의 청산(靑山)과 녹수(綠水)를 찾아 가끔 꿈속에 돌아가곤 하였습니다.[47]

하지만 이때의 최치원은 젊었으며 그에게는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자연에 침잠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세상과 자연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사실, 이때 나타난 자연에 대한 지향은 유자라면 누구나 갖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자연 지향이었다. 현실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유자들은 종종 자연으로 눈을 돌리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일종의 관념적 유희인 것이다.[48] 이 시기 최치원의 자연지향은 관습적 표현의 범주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치원의 이런 자연 지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바꿔나가게 된다. 진세와 자연에 대한 대립적 인식은 여전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과 현실은 점점 더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최치원 자신의 지향은 진세를 벗어나는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었다.

---

47) <재헌계(再獻啓)>, ≪계원필경집≫ 권17. 이상현 역 ≪계원필경집≫ (올재, 2013) 307쪽.

48) 강석근, 앞의 글 339쪽.

사실 최치원으로서는 여러 차례 자신을 던져 상황을 변화시켜 왔다. 아버지의 뜻이기는 하였으나 신라 사회에서 겪게 될 육두품으로서의 한계를 피해 도당 유학을 선택하였고, 인백기천의 노력으로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중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자 신라 귀국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신라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문학에 능통한 지식인을 존중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완강한 골품제를 고수하고 있던 신라에서 육두품 출신 최치원은 운신이 쉽지 않았다. 결국 최치원으로서도 더 이상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세상과의 불화가 극심해진 이후, 최치원의 원리진세는 탈속 및 은거 지향으로 그 모습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관습적이고 일반적이던 최치원의 자연 지향이 구체적이며 경험적인 자연지향으로 변모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다보니 차츰 초기의 자연에 대한 주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탈속 지향이 나타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각성의 진폭이 커지면서 점차 탈속지향성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현실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증폭되면서 탈속 지향적 성격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최치원의 탈속 지향은 여러 국면을 통해 점점 더 구체화되다가 가야산 은거라는 생의 마지막 모습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Ⅲ. 최치원의 시적 대응

1. 적극적 영달 추구

고운(顧雲)을 통해 고병에게 인사를 넣은 최치원은 자신을 의탁하는 글[49]과 시를 지어 고병에게 바친다. 문학을 통해 입신하는 것이 최치원

49) 최치원이 쓴 <초투헌태위계(初投獻太尉啓)>와 <재헌계(再獻啓)>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계원필경집≫ 권17.

으로서는 당연한 때문도 있지만, 타국에서의 자기 현실 타개는 당장 최치원에게 절박한 문제였다. 그래서 입신과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은 그의 시에 매우 적극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이 무렵의 시 <진정상태위시(陳情上太尉詩)>[50]는 자신을 의탁하려는 최치원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海內誰憐海外人　　해내의 누가 해외인을 가련히 여길까요.
問津何處是通津　　나루가 어디인가 물었는데 거기가 여기군요.
本求食祿非求利　　본래 식록을 구한 것입니다, 명리가 아니고.
只爲榮親不爲身　　단지 어버이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客路離愁江上雨　　나그네길 이별의 시름은 강 위의 비 같고
故園歸夢日邊春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저 하늘가 봄 같아요.
濟川幸遇恩波廣　　내를 건너다 다행히 넓은 은혜의 물결 만나니
願濯凡纓十載塵　　원컨대, 10년 동안 쌓인 갓끈의 먼지 씻게 하소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해외인(海外人)이자 나그네이다. 해내(海內)의 그 누구도 가련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가련하기 짝이 없는 해외인이다. 그가 찾는 것은 나루인데 그는 아직 나루를 찾지 못했다. 나루를 찾아다니는 그는 그래서 강 위에 내리는 비 같은 이별의 길이 시름겨운 나그네이다. 이런 나그네는 객로(客路)를 끝마칠 귀향을 꿈꾸지만 그 꿈은 하늘가 봄 같아 그립고도 아스라하다. 그러던 나그네가 지금 나루를 찾은 것만 같다. 모르긴 몰라도 10년은 족히 찾아다닌 듯하다. 그래서 자신이 찾던 통진(通津)이 여기인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그간의 조심스러운 설렘을 벗고, “원컨대, 10년 동안 쌓인 갓끈의 먼지를 씻게 하소서”하고 자신의 바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최치원이며 이 시의 해내는 중국 땅이다. 안과

50) ≪최문창후전집≫ 403쪽.

밖의 두 영역 중 최치원은 자신을 밖에서 온 외래자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해내인 그 누구도 가련히 여기지 않는 '해외인'으로 자신을 상정하고 있다.

그에게 나루[51]는 무엇일까? 그것은 벼슬길로 나아가는 길이자, 입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 시에서 최치원은 자신이 10년 세월을 환로(宦路)에 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그 나루를 찾는 데 실패하였고, 객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통진을 찾았다. 넓은 은혜의 큰 물결을 만난 셈이다. 그러자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진술한다. 갓끈의 먼지를 씻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거침없이 피력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노력이 자신을 위함이 아닌 어버이를 위한 것이며, 자신이 구하는 것은 벼슬아치의 식록일 뿐 명리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니 어버이를 위하고 벼슬아치로서의 식록을 구하는 자신의 나루찾기는 정당화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갓끈을 씻고 싶다는 고백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년이나 나루를 찾던 그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에게 이런 적극성을 키워주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치원이 그 시를 받는 상대방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사람은 일반적인 청자 혹은 독자가 아닌,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자 고병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최치원은 자신의 상황을 타개해 줄 능력이 있는 고병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을 받아줄 것을 적극적

51) 이에 대해서는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때 밭가는 장저(長沮)와 걸닉(桀溺)에게 자로(子路)를 시켜 나루를 묻게 한 데서 유래한 ≪논어≫ <미자(微子)>의 문진(問津) 고사를 참고해야 한다. (이상현, 앞의 책 481쪽) 나루[津]라는 시어는 빈공제자의 시에도 자주 보인다. 최광유(崔匡裕)의 <장안춘일유감(長安春日有感)>에 '여윈 말 타고 관하에서 나루 묻기도 지쳤네(羸馬關河倦問津)'라는 구절이 있고, 박인범(朴仁範)의 <기향암산예상인(寄香巖山睿上人)>에도 '스스로 한탄스럽네, 나루 못 찾고 궐하에 의지하는 것(自嘆迷津依闕下)'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영달을 위한 최치원의 적극적 처신이 시로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진정의 뜻은 <귀연음헌태위(歸燕吟獻太尉)>[52]에서도 확인된다.

秋去春來能守信　　가을에 갔다 봄에 오는 약속을 지키며
暖風涼雨飽相諳　　따뜻한 바람 서늘한 비 충분히 겪었지요.
再依大廈雖知許　　다시 큰 처마에 기대라 허락은 받았지만
久汚雕梁却自慙　　오래 들보 더럽힘이 스스로 부끄러워라.
深避鷹鸇投海島　　새매를 피하려고 섬으로 숨을 때엔
羨他鴛鷺戲江潭　　강가에 노니는 물새들이 부러웠었지요.
只將名品齊黃雀　　명색은 참새와 나란한데도
獨讓銜環意未甘　　홀로 구슬 물어드리지 못 하니 섭섭합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돌아오는 제비는 긴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따뜻한 바람과 서늘한 비를 실컷 겪는다. 장도(長途)에 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움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매를 피하다가 본 강가의 물새들은 굳이 이런 먼 길을 나서지 않을 것 같아 잠시 부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비는 그 길을 감내한다. 봄에 돌아온 제비는 제비집 지을 큰 처마를 다시 허락 받았으나 처마 밑에 깃들어도 들보를 더럽히게 됨을 부끄러워한다. 사실 그 부끄러움은 처마를 내준 집주인에 대한 고마움의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제비는 예전에 옥환(玉環)을 물고와 고마움을 전했던 참새의 보은(報恩) 고사를 떠올리며 자기가 그러지 못함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긴 여정에 노출되었을 제비를 보며 최치원은 자신이 겪었던 그간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것이다. 입당(入唐) 후 힘든 시기를 보내던 자신의

52) ≪최문창후전집≫ 403쪽.

모습이 귀연(歸燕)에 겹쳐 떠올랐을 것이다. 강가의 물새들처럼 그냥 신라에 머물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최치원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최치원은 고병에게 의탁하여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큰 처마에 기대라 허락받은 제비의 심정이었을 것이다.[53] 그러니 오래 들보를 더럽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은 고병이라는 큰 처마에 기대게 된 최치원의 안도감이자 감사의 표현인 것이다. 그 감사는 진(晉)나라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에 나오는 참새[54]처럼 고병에게 구슬이라도 물어다 주고 싶었을 정도였지만, 이제 막 고병 휘하에 든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황작(黃雀)의 보은 고사를 언급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구슬을 물어와 고병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내밀한 다짐을 시에 담아낸 것이다.

일단 고병의 막료가 된 최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벗었으나[55]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충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려움에서 건져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며 지금 당장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서운하다고 시에 적어, 언젠가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것이라 은근히 다짐하는 것이다. 시를 통한 이런 충심의 전달은 표면적으로 고병에 대한 보은의 다짐이면서, 앞으로 환로에서 무력하게 있지는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반영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으려는 인백기

---

53) ≪계원필경집≫ 권18의 <여은문배수재구사계(與恩門裵秀才求事啓)>에도 '비록 못 속의 교룡(蛟龍)이 비를 얻어서 막다른 길에 매몰될 염려는 없어졌으나, 바다제비가 진흙을 물어다 화려한 들보를 더럽힌 죄를 졌습니다. 자취가 미천하여 황공함이 갑절이나 더하니, 깊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상현 역 ≪계원필경집≫ 381쪽.

54) 한(漢)의 양보(楊寶)가 나무 밑에 떨어져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황작을 잘 보살펴서 날려 보냈더니, 황의동자(黃衣童子)로 변신한 황작이 다시 찾아와 옥환을 주며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보은 고사. ≪수신기(搜神記)≫ 권20. 이상현 역, 같은 책 484쪽 주101 참조.

55) ≪계원필경집≫ 권17의 <사생료장(謝生料狀)>, <사직장(謝職狀)>, <사차택장(謝借宅狀)>은 고병의 도움으로 관역순관(館驛巡官)에 임명되고 경제적 안정을 얻은 최치원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

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입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처음 고병에게 바친 30수의 시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애초에 고병의 휘하에 들기 원하면서 자신의 문재(文才)를 펼쳐 보이려던 최치원은 고병의 인품과 업적을 기린 30수의 시를 <헌시계(獻詩啓)>[56]와 함께 고병에게 보냈다. 그 30수 중에도 <진정(陳情)>[57]이라는 시가 있다.

俗眼難窺氷雪姿　　속된 눈으로 신선의 자태 엿보기 어려워
終朝共詠小山詞　　아침 내내 신선 노래 소산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此身依托同鷄犬　　이 몸의 의탁함이 닭이며 개와 같으니
他日昇天莫棄遺　　다음에 하늘 오르실 때 부디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자신을 속인(俗人)으로, 상대를 선인(仙人)으로 규정한다. 신선은 빙설 같은 자태를 지니고 언젠가는 하늘로 승천할 존재인데, 속인인 자신은 그 자태를 엿보기도 어려우나 그래도 자신을 의탁하니 나중에 승천할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한다.

소산의 노래는 한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문객인 회남 소산의 무리가 초나라 굴원을 동정하며 지었다는 <초은사(招隱士)>라는 시를 말한다. 유안은 신선술을 터득하여 만든 단약(丹藥)을 온 가족에게 먹이고 함께 대낮에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인물로, 그 집의 개와 닭도 그릇에 남아있던 단약을 핥아먹고 하늘로 올라가 '개는 천상에서 짖고 닭은 구름 속에서 울었다[犬吠於天上 鷄鳴於雲中]'는 전설을 남겼다고 한다.[58] 이런 내용을 시에 반영한 최치원은 고병의 도교 취향을 의식한 듯하다. 고병의 자태를 신선에 비유하고 그가 언젠가 승천할 것을 당연시하며 그때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다. 심지어 자신의 신세를

56) ≪계원필경집≫ 권17.
57) ≪최문창후전집≫ 383쪽.
58) 이상현 역, 앞의 책 332~333쪽 참조.

닭과 개에 비유하며 유안 집의 닭과 개가 그릇에 남은 단약을 핥아먹고 함께 승천했듯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고병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를 받게 될 고병의 도교 취향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쓴 데다, 자신을 고병에게 의탁하고 싶다는 소망을 비굴할 정도로 강하게 표출하였다. 영달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최치원의 적극성이 시화된 것이다.

최치원이 고병에게 보낸 30수의 시에 한해서는 고병을 높이는 것이 시작(詩作)의 목표 그 자체였다. 고병의 휘하에 들기 위하여 최치원은 고병의 선택을 받아야 했으며 그 선택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바로 최치원의 문학적 역량이었고 시재(詩才)였다. 최치원은 고병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입신의 길에 들어서려 하였고 앞에 든 여러 작품들은 이런 최치원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치원이 생각한 문학의 기능은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고 영달하자는 데 있었다[59]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계원필경집≫이 갖는 목적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나라에서 자신의 앞길을 열어준 문학적 능력이 다시 한 번 신라에서 그 효용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전 최고(最古)의 개인문집인 ≪계원필경집≫은 영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치원의 자세가 반영된 목적성 강한 문집이 되었다.

그런데 고병에게 지어올린 시와, 헌강왕에게 바친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시는 거기에 반영된 최치원의 자세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병에게 자신을 천거하던 시절 포의(布衣) 최치원이 보인 절박함이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시에서는 많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최치원의 자세 변화는 이미 조정에 들어있었던 자신의 위치와, 신라 내에서의 도당 유학생 출신이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 오는 여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병을 기린 기덕시에서처럼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자천의 모습을 자제하는 대신, 최치원은 우회적이면서도 은근한 방식으로 헌강왕

5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271쪽.

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우회적이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치원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시를 통해 당나라 인사들과의 교유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60] 실제로 최치원은 ≪계원필경집≫에 고병, 배찬(裵瓚), 양섬(楊贍), 오만(吳巒) 등과 관련된 시들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이들 관련 시편들은 뚜렷한 시적 내용이 없다. 오히려 개인적 감회를 드러내는 시는 자제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최치원이 염두에 두었던 ≪계원필경집≫ 진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계원필경집≫에 수록한 시들을 통해서는 시의 내용보다 자신의 교유 범위와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려 한 최치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미 빈공과에 급제하고 고병 휘하에서 중책을 역임한 뒤 당나라 사신의 자격으로 귀국한 최치원이었으나, 헌강왕에게 보다 확실하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최치원은 당나라 인사들과의 실제 교유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편의 시들을 왕에게 올려 자신의 당 인사들과의 유대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61]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계원필경집≫에 골라넣은 시에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정감이 담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 정서를 자제한 시편을 넣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서의 표

60) 이런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글들은 주로 ≪계원필경집≫ 권19에 실려 있다. 물론, ≪계원필경집≫ 자체가 고병 휘하에서 4년 동안 작성한 글들을 모은 것이므로 ≪계원필경집≫은 그 자체로 당나라에서의 자신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는 책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시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유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최치원의 의도가 시 선별에 반영된 점에 주목하였다.

61) 최치원과 오만이 관련된 시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집≫에 오만에게 보낸 시 <수오만수재석별이절구(酬吳巒秀才惜別二絶句)>를 싣고 있는데, 이는 ≪동문선≫에 전하는 그의 다른 시 <송오진사만귀강남(送吳進士巒歸江南)>과는 차이를 보인다. 앞의 시가 관습화된 시어를 사용한 건조한 시인데 비해, 뒤의 시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드러나는 시이다. 이에 대한 상론은 다음으로 미룬다.

현보다는 시를 주고받은 대상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고 시에 담긴 개인적 감회보다는 시로 표현된 문학적 재능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계원필경집≫을 통해 영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던 최치원의 의도에 기인한 바 크다.[62]

≪계원필경집≫에 수록된 시를 포함한 이런 최치원의 시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시기에 나타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당나라에서 고병에게 의탁하고자 할 때, 헌강왕에게 자신을 펼쳐보이고자 할 때, 최치원은 모두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전에 임하였다. 자신을 사회화(社會化)하고자[63] 하는 의지를 담아, 자신의 뜻을 펼쳐 써 [진정(陳情)] 시화한 것이다. 진정시 계열의 이런 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최치원의 의지가 시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런 시를 쓰는 데 대해 최치원이 갈등을 겪거나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치원으로서는 문학을 통해 영달하는 것이 문학하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학을 통해서도 영달할 수 없던 상황이 최치원에게는 고민이었다.

2.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최치원의 노력과 그를 시화한 진정시 계열의 시는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고 싶었던 최치원의 영달 추구 의지를 드러낸다. 실제로 고병에게

62) 최치원이 헌강왕에게 글을 지어 올릴 때 ≪중산복궤집(中山覆簣集)≫이라는 시집도 함께 올렸다고 하나 지금 ≪중산복궤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최치원이 글을 진상할 때에 보다 공식적인 글을 ≪계원필경집≫에, 그에 비해 개인적인 글은 ≪중산복궤집≫에 나눠 실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만 수재에게 보낸 앞의 시는 ≪계원필경집≫에 실었더라도, 개인적 감회가 보다 선명한 오만 진사에게 준 시는 ≪중산복궤집≫에 실었을 수 있다. 공권의 목표를 생각하여 책의 성격에 맞추다 보니 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드러난 시는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 ≪중산복궤집≫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책이 전하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다.

63) 이구의, 앞의 책 52~58쪽 참조.

지어 올린 진정시는 말단관직을 전전해야 했을 최치원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정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가 거둔 노력의 결실은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 했다. 오래지 않아 고병은 실각했고 도교에 침잠하였으며 최치원의 의탁처가 되어주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고병은 더 이상 이상적 통진(通津)이 될 수 없었고 최치원은 자신의 이상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

선택의 기로에 선 최치원은 신라 귀국을 결정하였다. 유자로서 뜻을 펼치고 문학으로써 영달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최치원은 새로운 선택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이제 그의 이상은 고국 신라에서 펼치게 될 것이며 신라로 떠나가는 최치원은 한편으로는 신라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한편으로는 자신이 두고 떠나는 당과 고병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하게 된다.

신라를 향해 가는 이 시기의 최치원은 신라 귀국의 기대감을 시에 담기도 했다.[64] 그러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살에 떠나온 조국으로 돌아가는 28살 최치원의 마음에는 당나라에서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잊고 지냈던 육두품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이 존재했을 것이다. 오래도록 단절되었던 낯선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그 자체가 주는 부담감도 있었겠으나 애초에 신라를 떠나올 때 가졌던 신라사회에 대한 신분적 불만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육두품의 신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최치원이 겪었던 어려움을 벗어나는 순간, 당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감내했어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감내해야 하는 신라에서의 어려움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라 귀국은 최치원에서 새로운 기회였다. 그 동안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렸던 자신의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귀국

64) ‘與君相見且歌吟 莫恨流年挫壯心 幸得東風已迎路 好花時節到鷄林’ <화우인제야견기(和友人除夜見寄)>, ≪최문창후전집≫ 405쪽.

이후의 삶을 그려보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이전 삶과 다름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이는 일이었다. <두견(杜鵑)>[65]에는 그런 최치원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石罅根危葉易乾　　돌 틈에 뿌리 내려 잎이 쉬이 메마르고
風霜偏覺見摧殘　　풍상에 시달려 꺾이고 시들었네.
已饒野菊誇秋艷　　가을자태 자랑하는 들국화는 봐준다 해도
應羨巖松保歲寒　　추위에도 꿋꿋한 바위의 솔은 응당 부럽구나.
可惜含芳臨碧海　　애석하다, 향기 머금고 바닷가에 서있건만
誰能移植到朱欄　　누가 능히 붉은 난간가에 옮겨다 심어줄까.
與凡草木還殊品　　평범한 초목과는 품격이 다른데
只恐樵夫一例看　　지나가던 나뭇꾼이 같이 볼까 두렵구나.

돌 틈에 뿌리를 내린 탓에 잎이 쉬이 마르고 풍상을 겪으며 꺾이고 시든 진달래는 최치원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에게 당나라는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척박한 배경이었다. 오로지 인백기천의 노력으로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고가 바로 이 시의 수련(首聯)이다. 평범한 초목과는 품격이 다르다는 인식으로 나타난 최치원의 자부심은 그런 척박한 곳에서 견뎌내었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진달래가 지금 이식(移植)의 순간에 직면했다. 지금은 향기를 머금고 바닷가에 서 있지만 곧 옮겨 심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어느 집 붉은 난간가에 옮겨 심어준다면 참 좋겠지만, 지나가던 나무꾼이 평범한 초목과 같은 줄 알고 적재적소에 옮겨 심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 시의 후반부이다.

적재적소에 이식되지 못할까 걱정하는 모습은 최치원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 자신도 당에서 신라로 자신의 터전을 옮겨가는 상황이다.

---

65) ≪최문창후전집≫ 404쪽.

바라건대, 자신의 비범한 품격을 누군가 알아봐주어 어느 집 붉은 난간처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옮겨졌으면 좋겠으나 나무꾼이 그저 평범한 초목으로 여기고 지나칠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신라 귀국 즈음에 기대감과 함께 최치원이 가졌던 또 하나의 감정이었고 이런 감정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두견>인 것이다.

당나라 사신 자격으로 귀국한 최치원으로서는 금의환향이었다. 그러나 당과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말기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육두품 출신으로서 진골 귀족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는 것도 여전했고 국학 출신 육두품과의 경쟁도 상존하였다. 귀국길에 가졌던 최치원의 기대와 불안감 중,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고 불안감은 현실화되는 것이 차츰 더 많아졌다. 신라 귀국 때 최치원이 그렸던 이상적인 모습은 신라 말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과 차이가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890년 이후로 대산군[태인], 부성군[서산] 등의 지방관으로 전전하게 된 것이 그간의 상황을 말해준다. <여유당성증선왕악관(旅遊唐城贈先王樂官)>[66]은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人事盛還衰　　인생사 성했다 쇠하니
浮生實可悲　　떠도는 인생 참으로 서럽네.
誰知天上曲　　누가 알았으랴, 천상의 노래를
來向海邊吹　　바닷가 향해 불게 될 줄을.
水殿看花處　　물가 궁전에서 꽃 보던 곳
風櫺對月時　　바람 드는 창에서 달을 대했지.
攀髯今已矣　　돌아가신 임금을 이제 뵈올 수 없으니
與爾淚雙垂　　그대 악관과 함께 두 줄기 눈물 흘리네.

66) ≪최문창후전집≫ 28~29쪽.

이 시의 정조는 슬픔이다. 최치원은 그 슬픔을 선왕(先王)의 악관(樂官)이던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 궁전에서 꽃을 보던 시절과 바람 드는 창에서 달을 대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선왕이 승하하기 전이었고 악관은 왕을 위해 천상의 노래를 연주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승하하였고 천상의 노래는 바닷가를 향해 연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치원과 악관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67]

헌강왕 혹은 정강왕 시절에는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임금을 대하던 최치원이었다. 귀국하자마자 왕의 측근인 시독을 맡아 헌강왕 가까이에 있던 최치원이 지금은 태수직을 맡아 외방으로 돌고 있다. 귀국 초기에 최치원이 가졌던 기대감은 쇠한 지 오래고, 이제는 자신이 딛고 선 현실의 허약한 기반을 실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떠도는 인생이 참으로 서럽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시에 담아내게 된 것이다.

인생사 성했다 쇠하니 떠도는 인생이 참으로 서럽다는 최치원의 일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12살 어린 나이에 당나라까지 갈 때에는 가슴에 품은 큰 뜻이 있었다. 패기 만만한 젊은 시절에는 인백기천의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타개해 나갔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녹록치 않은 일이었고, 최치원은 마침내 신라 귀국을 단행한다. 귀국 후 최치원은 왕에게 ≪계원필경집≫을 올렸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적극성으로

67) 이때의 선왕은 헌강왕 혹은 정강왕으로 짐작되며, 악관을 만난 곳 당성(唐城)은 당항성(지금의 화성)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국토 판도를 생각할 때 최치원이 부성군(지금의 서산) 태수로 지내던 시절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 계림에서 부성군은 매우 멀고, 후기에 최치원이 자연을 벗하며 유랑하던 지역도 대개는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치원의 당항성 유람은 부성군 태수 시절이었던 37세 무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선왕의 악관과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시의 정황도 이런 추론의 근거가 된다. 악관과 함께 선왕을 추억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 인생사에 대해 서럽다는 성찰을 표명할 수 있는 연령대 등을 고려한다면 이 시는 신라 귀국 후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 좁게는 부성군 태수 시절의 작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영달을 이루려 하였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 가지 않았고 어느 새 자신은 외직으로 돌고 있다. 인생사 성하고 쇠하니 떠도는 인생이 서럽다는 이런 인식이 최치원으로서는 당연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인생에 대한 아픈 성찰과 그에 따른 회한의 눈물은 바로 최치원의 탄식이었다.

894년 2월 진성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리고 895년부터 898년 사이에 잠시 관로에 들어섰던 최치원은 진성왕이 실정의 책임을 지고 내물왕계의 효공왕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자신도 정계를 떠나게 된다.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으로 이어지던 경문왕계와 운명을 함께 하는 셈이다.[68]

3. 탈속과 은거 지향의 자세

최치원의 자연 지향은 처음에는 문학적 관습으로 시작되었다. 당나라 시절의 시에서 발견되는 자연 지향은 최치원의 문학적 능력을 담아내는 새로운 소재 정도의 의미였다. 이 무렵의 자연 지향시는 탈속이나 은거의 문제로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등윤주자화사상방(登潤州慈和寺上房)>[69]은 최치원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登臨蹔隔路岐塵　　산에 오르니 갈래길 먼지 잠시 멀어졌는데
吟想興亡恨益新　　흥망을 읊조리니 한은 더욱 새로워라
畵角聲中朝暮浪　　뿔피리 소리 속에 아침 저녁의 물결이요,
青山影裏古今人　　청산 그림자 속엔 고금의 인물이로다.
霜摧玉樹花無主　　서리 맞은 나뭇가지 꽃은 주인도 없고
風暖金陵草自春　　바람 따뜻한 금릉엔 풀만 스스로 봄이네.
賴有謝家餘境在　　사씨 집안의 남은 경지 아직도 있어

68) 장일규, 앞의 글 46~47쪽.
69) ≪최문창후전집≫ 29쪽.

長敎詩客爽精神　　시객의 정신 길이 상쾌하게 하네.

이 시에서 자화사라는 공간은 일단 진세와는 먼 공간이다. 이 시의 산은 사찰과 치환될 수 있으나 여기서의 산 또는 자연은 시객의 정신 길을 상쾌하게 하는 긍정적 공간으로 나타날 뿐이다. 나무에 서리가 내렸어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곧 봄임을 알리는 공간, 뿔피리 소리 들리는 그 공간에서 최치원은 청산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낭만적이며 안온한 공간으로서의 자화사 인식이다. 그러니 여기서 최치원은 사씨 집안 시인들의 시를 돌아보게 되고, 시객의 정신이 상쾌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의 자화사가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시에서 속세에서의 시련이나 괴로움을 찾기는 어렵다. 자화사라는 공간에서 최치원은 편안함과 따뜻함, 상쾌함 등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여기서 최치원이 읊조리는 흥망과 새롭게 느끼는 한(恨)은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에서 안온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자연지향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속세와의 구체적 대비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자연지향은 관습적 표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최치원의 자연 지향은 다른 시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주된다. <증금천사주(贈金川寺主)>[70]에서는 자연이 속세와 매우 거리감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白雲溪畔搆仁祠　　흰 구름 시냇가에 절을 지어
三十年來此住持　　삼십 년 내내 이 곳에 머물고 있네.
笑指門前一條路　　웃으며 문 앞 한 가닥 길 가리키는데
纔離山下有千岐　　겨우 산 아래 오면 어느 새 천 갈래의 길.

70) ≪최문창후전집≫ 26쪽.

이 시에서는 금천사를 속세와 직접 대비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천사 주지가 웃으며 가리키는 절 앞의 한 가닥 길이, 세상에 내려오면 어느 새 천 갈래의 길이 되어 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금천사와 세상에 대해 암묵적으로 그 대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천 갈래 길[千岐]은 다른 시에서 종종 진세를 의미하는 것[71]으로 나타난다. 진세의 속성을 갈래길로 파악한 것이다. 이것은 천 가닥 만 가닥의 번뇌와도 상통한다.

최치원이 파악한 '갈래길'은 선택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천 갈래 길과는 다르게 절 앞에는 그저 한 길만이 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등윤주자화사상방>과는 차이를 보이는 공간 인식이다. 자연과 치환되는 금천사라는 공간은 속세와는 매우 다른 곳으로 그려져, 속세에 대한 관습적 혐오과 자연에 대한 관습적 지향에서 머물던 앞의 시와는 공간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등윤주자화사상방>에서 속세와 자연과의 대비만이 있었다면 <증금천사주>에서는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런 속세와 자연과의 거리감은 <증재곡난야독거승(贈梓谷蘭若獨居僧)>[72]에서는 속세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그 거리감이 강조된다.

除聽松風耳不喧　　솔바람 말고는 귀에 걸림이 없고
結茅深倚白雲根　　얽은 띠집은 흰 구름가에 의지하였네.
世人知路翻應恨　　세상사람 길 아는 것 한스럽구나.
石上莓苔汚屐痕　　돌 위의 이끼 신발자국에 더럽히겠네.

이 시에 이르면 최치원의 자연 지향이 앞의 시들과는 달리 탈속의 경지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흰 구름가에 집을 지은 것은 앞의 시

71) '登臨甓隔路岐塵' <등윤주자화사상방(登潤州慈和寺上房)> ≪최문창후전집≫ 29쪽.
72) ≪최문창후전집≫ 27쪽.

<증금천사주>와 마찬가지이지만 솔바람 말고는 귀에 걸리는 것 없는 공간으로 그 인식이 확대된 것이 앞의 시와는 차이를 보인다. 재곡사라는 공간은 솔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온갖 소리를 듣던 속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갖은 소리를 듣던 진세를 떠나와 머문 그 공간에 최치원은 오롯이 침잠한다. 그러나 곧 걱정이 있음을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이 재곡사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들이 신발자국으로 재곡사를 더럽히지는 않을까, 돌 위의 이끼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는 것이다. 이런 염려는 사실상 최치원 자신에 대한 염려이다. 이제 세상 잡음으로부터 빠져나와 솔바람 소리만 듣는 평안을 얻었는데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와 자신이 얻은 안온함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염려는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73]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狂奔疊石吼重巒　　돌 사이 세찬 물에 온 산이 부르짖어
人語難分咫尺間　　지척 간 사람 말도 알아듣기 어렵구나.
常恐是非聲到耳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늘 두려워
故敎流水盡籠山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쌌네.

여기서 최치원이 세상과 대결하는 방식은 앞의 시 <증재곡난야독거승>과는 사뭇 다르다. 앞의 시에서 솔바람 소리 외에는 일체의 잡음이 없는 무음(無音)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세상과 대결했다면, 이 시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로 세상의 소리를 압도하는 이성제성(以聲制聲)의 방식으로 세계와 맞선다. 앞의 시가 소극적 방어였다면 이 시는 적극적 대응인 것이다. 이때의 세상 소리는 시비를 논하는 소리이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잡다한 소리들은 진세를 상징한다. 그

73) ≪최문창후전집≫ 27쪽.

런데 그 진세를 떠나온 이 곳은 온 산의 물소리가 그런 잡다한 소리들을 둘러싸고 에워싸는 곳이다. 물소리에 묻혀 세상의 시비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곳이다.

이런 시 세계는 최치원이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거듭되는 현실에서의 선택 문제를 통해 최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의 진폭이 커지면서 점차 시에서도 탈속지향성이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구체화되면서 시에서의 탈속 지향적 성격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이다.

<제가야산독서당>에서의 이런 대응은 <등윤주자화사상방>에 비해 자연 귀의적이며, <증금천사주>와 비교해서도 그 인식이 격정적이고, <증재곡난야독거승>에 비해서는 한층 처절한 방식이다. 더 이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섰는데 그곳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가야산 독서당이다. 이곳은 온 산을 부르짖는 돌 사이 세찬 물이 주위를 둘러싼 곳이다. 지척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그 흐르는 물소리가 온 산을 둘러싸고 있어, 역으로 시비 소리가 귀에 들릴까 늘 두려워하던 마음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무음의 공간보다 이성제성의 이 공간에서 오히려 시름을 잊는 최치원은 그래서 그 망세(忘世)의 방식이 세상과의 결연이며 그래서 그 방식이 처절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것은 신라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비운의 지식인이 토해내는 피맺힌 절규[74]이기도 하다.

최치원의 자연 지향 문제는 애초에 관습적 표현으로 출발했다. 유자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자연 속의 삶을 그리는 것으로 시에 나타났고 최치원이 영달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동경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선택의 문제에서 세상과의 불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불화의 정도가 더해갈수록 또 그 불화의

74) 강석근, 앞의 글 341쪽.

빈도가 잦아질수록 최치원 스스로의 은거 지향도 조금씩 선명해진다. 이런 탈속에 대한 관심은 세상과의 거리를 최대화시켜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에 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세상과의 파국으로 극대화된다. 이것은 가야산 은거라는 생의 마지막 모습과도 일치한다.[75] 보통의 유자가 세상과 절연해도 자연 속에 은거하여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과 달리, 최치원은 그 삶의 마지막 모습까지 세상으로부터 감추었고, 그의 종적을 알 수 없는 세상은 그가 선화(仙化)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Ⅳ. 결론

본고는 최치원의 삶과 시 세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최치원의 삶이 특징적 변화를 보이는 지점에서 그의 시적 대응도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의 삶과 그의 시가 조응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최치원의 삶의 자세와 그 변화를 시 세계의 변화와 함께 살폈다.

그간의 연구들은 최치원 시 세계의 특정한 면만 부각시킨 감이 있다. 문학적 가치가 높은 몇몇 작품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은거지향성 등 일부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면이 있었다. 이것은 최치원의 문학적 생애에 대한 착시를 유발하여 그의 문학적 생애

75) <증산승(贈山僧)>과 <화개동(花開洞)시> 8수는 탈속과 은거 지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 글의 논의 전개에 보다 강력한 논거가 될 수도 있으나 최치원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논의에서는 배제하였다. <증산승>은 해운대 고운선생동상시문(孤雲先生銅像詩文) 외의 다른 문헌에는 전하고 있지 않아 위작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이황진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황진, 「최치원 현존시 재고」『아시아 문화 연구』 29 (가천대 아시아 문화 연구소, 2013)) 지리산 화개동의 사계를 읊은 <화개동시> 8수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전하는데 이 또한 최치원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종대도 같은 입장이다. (정종대, 앞의 글 298쪽)

를 재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최치원의 삶에 공존하는 몇 가지 삶의 자세를 분석한 후 그것이 어느 특정 시기에 도드라져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되는지에 주목하여, 그의 삶과 그의 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도 분석해 내었다.

처음 최치원은 자신의 삶이나 환경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두품의 신분적 제약은 도당 유학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고, 실제로 인백기천의 노력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이 생각한 목표에 다가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외국인의 과거 급제는 처음부터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수선기간을 채워야만 했고, 그 기간을 채운 후에도 말단관직을 받는 데 그쳐야 했다. 수선과 관직제수는 앞으로도 반복될 일이었고, 최치원으로서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안으로 선택한 박학굉사과 준비는 현실적 제약 앞에서 좌절되었으며 최치원은 다시 한 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지만, 이때에도 진정시를 써 고병의 막부에 들게 된다. 영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방식으로 문학적 역량을 활용하여 다시 한 번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신라 귀국 후에도 이어져 헌강왕에게 ≪계원필경집≫을 진상하는 것으로 재연된다.

최치원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소지음의 상황을 절감하였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는 상황에서 소지음의 인식은 심화되어 갔고, 최치원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도 차츰 더 멀어져 갔다. 고병 실각 후 최치원은 신라 귀국을 단행하였으나, 중국에서의 외국인 신분 못지않게 신라에서의 육두품 신분 역시 그에게 질곡이 되었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유자로서의 이상, 문학으로 영달하겠다는 포부는 여러 번 현실의 벽 앞에 막혔으며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여러 차례

시로 형상화되었다.

신라 귀국 후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최치원은 외직을 전전하며 은거 지향을 구체화시킨 듯하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동경의 대상이자 관습적 소재이기만 했던 자연 공간이 자신의 말년을 의탁할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탈속과 은거를 지향하는 목소리는 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자연 속에 숨어들어가 그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최치원의 생의 마지막 모습과도 일치한다.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 뛰어난 문학적 능력과 적극적 자세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신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최치원의 불행이었다. 그는 그 불행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세상과의 불화를 극복하지는 못 했다. 오늘날 최치원이 남긴 시의 많은 부분은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이 굴절되고 반영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서거정, ≪동문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문창후전집≫ (아세아문화사, 1975)
안영훈 · 김진영 역주, ≪고운 최치원 시집≫ (민속원, 1997)
이상현 옮김, ≪고운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이상현 옮김, ≪계원필경집≫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올재, 2013)

고운국제교류사업회 편찬,『고운 최치원의 시문학』(문사철, 2011)
레온 에델,『작가론의 방법』(삼영사, 1983)
성낙희,『최치원의 시정신 연구』(관동출판사, 1986)
이구의,『최고운의 삶과 문학』(국학자료원, 1995)
이상섭,『문학 비평의 방법과 실제』(동천사, 1987)
조동일,『한국문학사상사시론』제 2판 (지식산업사, 1998)
조동일,『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 2005)

강석근,「고운 최치원의 불교시 재론」,『동악어문논집』38 (동악어문학회, 2001)
구본기,「최치원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1, 한국한시학회 (태학사, 1995)
김성룡,「신라 왕실과 최치원」,『한국문학사상사』(이회, 2004)
서수생,「동국문종 최고운의 문학」,『어문학』(한국어문학회, 1956)
이강옥,「남북국시대 지식인의 고뇌와 문학-고운 최치원」『한국고전문학작가론』(소명, 1998)
이혜순,「빈공제자의 시에 관하여」,『한국한문학연구』7 (한국한문학연구회, 1984)

이황진, 「최치원의 재당 생애 재고찰」, 『한국민족문화』 4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황진, 「최치원의 현존시 재고」, 『아시아문화연구』 29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이황진, 「최치원의 재당 시기 한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장일규, 「최치원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북악사론』 9 (북악사학회, 2002)
최신호, 「최치원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7)
호승희, 「신라한시 연구 - 전개양상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Choi Chi-won's Life and Poetic Responses

Kim, Eun-mi*

Choi Chi-won's footprints are quite remarkabl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previous studies treated his masterpieces fragmentarily or exaggerated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bserved in his poetry, failing to grasp the reality of Choi Chi-won's poetic world. This study was started from the fact that Choi Chi-won exhibited his poetic responses at the points of time when he experienced characteristic changes in his life. By analyzing how his poetry interacted with his life, this study explored the attitudes and changes of his lif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his poetic world.

Choi Chi-won's life was very active from the beginning. He believed that he could overcome his life problems through efforts. He attempted to overcome the restriction in his social status under the rank system of Shilla through studying in China, the Tang Dynasty, and succeeded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rough the efforts of *Inbaekgicheon* (人百己千 - 'I do 1000 times when others do 100 times'). His position as a foreigner, however, was quite unstable in China. He had to wait long until being appointed as an official only to get an obscure position. In order to escape from such a situation, he prepared *Boxuehongcike* (博學宏辭科 - Erudition and Literacy Examination), but because of adverse situations he joined the camp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Gao Bing (高棅). It was to open up his future through his own efforts. Pleading poems (陳情詩) he wrote in those days show Choi Chi-won's struggle to rise using his literary talents. Such an active response is also confirmed in the purpose of compiling *Gyewonpilgyeongjip* dedicated to King Heongang after returning to Shilla.

While staying in China, on the other hand, Choi Chi-won felt keenly the situation of *Sojieum* (少知音 - having no friend upstanding my heart). His awareness of *Sojieum* grew deeper while he was living as a stranger in the foreign country, and the gap that he felt between ideals and realities also grew wider. This situation continued after he returned to Shilla, and such conflicts between ideals and realities were configured several times in his poems.

Not long after returning to Shilla, he moved from and to provincial posts and it seems that he shaped up his idea to live in retirement during that time. He came to admit that there were real problems insurmountable through his efforts alone. Then, natural space, which had been an object of yearning, was seen as a place to which he could rely on. His attitude oriented to being unworldly and living in retirement was deepened through several turnovers and was finally concluded in the form of disappearance.

This study examined Choi Chi-won's different attitudes toward life and how such attitudes were configured in his poetic world. This work is expected to make some contribution to reconstructing his literary life and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Choi Chi-won's poetic world.

Key Words : Choi Chi-won, studies in authors, Inbaekgicheon, Sojieum, Wonrijinse, pleading poem, retirement poem

▌논문접수 : 2014년 7월 18일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